

2023. 9. 15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1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예방팀
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예 방 팀 장 | 이 은 규 | 02-3706-1510 |
| 담 당 자   | 김 석 진 | 02-3706-1511 |
|         | 유 종 표 | 02-3706-1516 |

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: 3매

### 서울시, 추석 연휴 소방안전대책 발표… 전통시장, 물류센터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

- 전통시장 350개소, 대형마트 47개소 등 총 578개 대상 화재안전조사 실시
- 쪽방촌,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44개소 화재안전컨설팅 추진
- 9.27.(수)부터 추석 연휴 기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

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전통시장, 대형 물류센터 등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”라고 15일(금) 밝혔다.

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전통시장 화재는 총 129건이며 이 중 9~10월에 24건이 발생하여 전체 전통시장 화재 중 18.6%를 차지했다.

표2) 과거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('18 ~ '22)

(단위 : 건)

| 합 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129 | 14 | 15 | 10 | 9  | 9  | 8  | 13 | 10 | 12 | 12  | 7   | 10  |

출처 : 서울소방재난본부

- 또한 최근 5년간의 ‘음식물 조리’ 화재 가운데 9~10월에 각각 525건과 487건이 발생했다. 이 같은 건수는 전체 ‘음식물 조리’ 화재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.

표1) 서울시, 세부 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('18 ~ '22)

(단위 : 건)

| 구 분   | 합계     | 1월    | 2월    | 3월    | 4월    | 5월    | 6월    | 7월    | 8월    | 9월    | 10월   | 11월   | 12월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부주의화재 | 15,584 | 1,428 | 1,224 | 1,355 | 1,556 | 1,537 | 1,233 | 1,156 | 1,018 | 1,221 | 1,317 | 1,167 | 1,372 |
| 음식물조리 | 4,962  | 402   | 295   | 374   | 403   | 468   | 447   | 460   | 398   | 525   | 487   | 385   | 318   |

출처 : 서울소방재난본부

- 이와 같은 소방활동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시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 시민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물류센터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‘추석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’을 적극 추진한다.
-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▲ 전통시장·물류센터·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강화 ▲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▲ 소외된 이웃에 대한 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활동 ▲ ‘집 비우기 전 안전점검 캠페인’ 등 시민 홍보 강화 등이다.
- 먼저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350개소, 지하상가 35개소 등을 포함한 총 578개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.
- 특히 대형물류센터(6개소)와 대형마트(47개소)·백화점(29개소) 등은 비상구 폐쇄나 주변 장애물 적치,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.

- 쪽방촌(12개소), 주거용 비닐하우스(18개소) 등 화재취약주거시설은 안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화재안전컨설팅(상담)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.
-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‘주택 화재 안전봉사단’을 운영하여 홀몸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등 ‘찾아가는 안전지킴이’ 활동을 추진한다.
- 아울러 동서울 터미널, 고척스카이돔, 서울시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시설과 협업하여 ‘집 비우기 전 안전점검 캠페인’을 진행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대책이 시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이 밖에도 대형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7일(수) 18시부터 10월 4일(수) 9시까지 추석 명절 연휴 대비 ‘특별경계근무’를 실시한다.
- 연휴 기간 동안에도 소방장비를 100% 가동하는 등 소방력은 공백 없이 유지된다.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서장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현장을 지휘한다.
-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시민 여러분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”라고 밝혔다.